

창립: 1991. 12. 29.

제32-32 2023. 08. 13.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8월 11(금)-13일(주일)
청년 미션팀 아웃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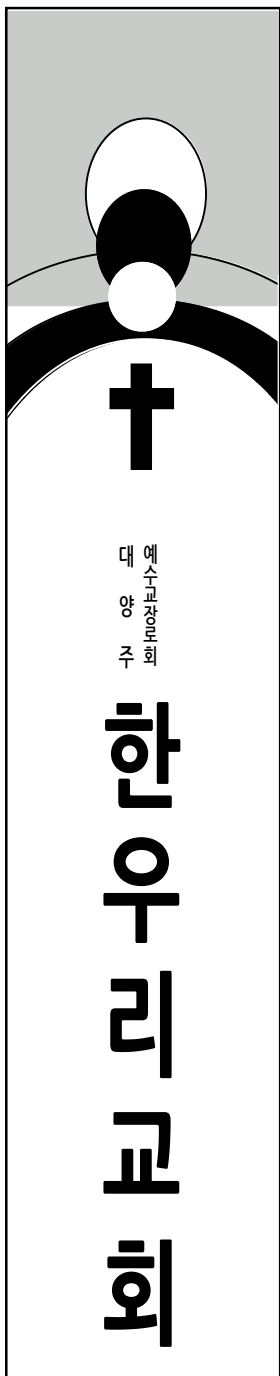
8월 27일(주일)
성찬식

8월 31일(목)
마더와이즈/파더와이즈
회복과정 수료식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주일에배

예배 순서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2:00 사회: 1부/안현수 2부/최영두 3부/이성민 4부/나하영

- 예배부름 사 회 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 경배와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 함 께
경배하리 주 하나님
- 봉헌 및 1부/ 조종면 장로 2부/ 김영열 권사 3부/ 이강용 장로 다 함 께
대표기도
- 성 경 약 3:14-15 사 회 자
- 찬 양 2부: 나를 구한 예수님 이야기 시온찬양대
3부: 매일 주와 함께 할렐루야찬양대
- 말 씬 미래를 여는 지혜 시리즈 4 남우택 목사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 찬 양 새롭게 하소서 다 함 께
여기에 모인 우리
- 축 도 설 교 자

<4부 예배 순서>

- 경배와찬양 다 함 께
- 봉헌 및 이 호 빈
대표기도
- 말 씬 시 147:1-6 이성민 목사
마땅함의 은혜
-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1부/ 최병한 장로 2부/ 민봉식 장로 3부/ 아규삼 권사 4부/ 김의진 청년

수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말씀: 빌 2:1-11
 제목: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기도: 김휘홍 집사 (다음 주 기도: 오 훈 집사)
 설교: 안현수 목사

교회 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알림

1.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접견실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2. 예배 시작전, 소지하신 휴대폰을 반드시 무음 처리하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제7기 한우리반 수료를 축하합니다. 이영주
4. 사랑부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강성배 집사 021 106 9821
5. 재정부의 온라인 헌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한우리 교회 온라인 헌금 안내

온라인 헌금시 협조 및 주의사항 안내

1. 온라인 헌금시 한우리 교회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로만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이메일로 개별 안내하지 않습니다.)
2. 온라인 헌금은 원활한 현금정리를 위해 아래 ASB계좌로만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Account Name : Hanouri Korean Church
Account Number : 12-3109-0139907-00
3. 송금시 아래 샘플 예시를 보시고 본인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Particular	Code	Reference
28 Ghana	01 Tithe	Lee Gwangil
목장번호는 홈페이지 "온라인 헌금안내" 참조	십일조 01 Tithe 주일헌금 02 Sunday 감사헌금 04 Thanks 구제헌금 05 Relief	IRD 등록 이름 또는
청년부번호 : 90 목장미소속 : 99	선교헌금 06 Mission 비전헌금 08 Vision 부활절 10 Easter 감사절 11 Thanks G 성탄절 12 X Mas 목적헌금 53 Nominate	헌금부투에 기입해 온 기준과 동일한 이름

4. 송금 후 기입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여러 헌금을 한번에 송금하셨을 경우 아래 이메일로 알려주시거나 재정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이메일 : hanourifinance@gmail.com 허진희 집사 021-0230-8976

전도부

- 이번 주일 오후 2:30분에 느헤미야홀 (요셉채플)에서 기도회 및 거리전도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 거리전도에 동참할 대원과 악기(기타, 키보드)로 섬겨주시실 분을 초대합니다.
시간: 주일 오후 3시부터
문의: 민봉식 장로 021 106 3498
- 전교인 거리전도: 2023년 9월-2024년 5월
다음 일정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일	목장/사역팀 거리전도 스케줄
9	03	로덴나무 평양 / 예멘 / 천국나그네
	10	제주한라 / 멜번 / 히얼빈 푸른 / 주일여자제자반
	17	낮은 울타리 / 우크라이나 / 느헤미야
	24	목장 방학

교우동경

- 새가족

이름	자녀	거주지
강신명 김정예		Emily Ln, Greenhite
이영진 김주연	이세인 이세라	East Coast Rd, Forrest Hill
최강욱		Balmain Rd, Chatswood
강혜경	김한나 김우진	Albany Highway
박평구 정진자	박강호 박성호	Toanui Rd, Hobsonville
김종천		Ormonde Dr, Silverdale
박현우 채다운		Kervil Ave, Te Atatu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열어갈 때 외부적인 환경의 장애도 위협적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내면세계가 잘못되면 이보다 더 큰 방해 요소는 없습니다.

1. 하나님께서 여신 미래를 열어가는데 자신의 바른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보십시오.

2. 악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메시지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세요.

3. 악한마음(독한 시기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보세요.

4. 이번 메시지를 통해 내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를 한가지씩 나누고 함께 기도하세요.

<p>미국</p>	<p>“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미국 루이지애나, 공립학교 교실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게시</p>
<p>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새로운 법에 따라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In God We Trust)’라는 국가 표어가 게시된다고 CBN뉴스가 4일 보도했다. 지난 6월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서명한 하원 법안8(HB8)이 지난 3일부터 각 학교에 적용됐다. 해당 법안은 “주가 관할하는 각 학교와 모든 교실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어를 게시해야 한다.”는 것이다.</p> <p>‘하원법안8’은 공립 교육구가 각 학교의 최소 한 곳에 해당 문구를 게시하도록 요구한 기존 루이지애나 법을 개정한 것으로, 과거에는 모든 공립학교 교실이 아닌 각 공립학교의 한 곳에 문구를 게시해야 했다. 또한 텍사스도 지난 2021년 동일한 법안을 제정했고, 테네시, 아칸소, 켄터키, 사우스다코다, 유타, 버지니아, 미시시피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출처: 뉴스제이, 복음기도신문).</p>	
<p>북한</p>	<p>“불안한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중국 거주 탈북 여성들, 강제 복송 위협에 매일 불안감 시달려</p>
<p>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강제 복송시키려는 공안의 단속이 강도를 더하면서 탈북 여성들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전했다. 2022년 3월 탈북민 여성 최모 씨와 동거인인 중국인 남성 사이에 태어난 9살 아들은 마을 입구로 들어오는 공안 차량을 보고 혈레벌떡 집으로 뛰어가 인방에 있던 엄마에게 “마을 어귀에 공안 차가 나타났다”며 숨으라고 소리쳤다. 아들 덕분에 빠르게 창고에 몸을 숨겼다.</p> <p>최씨는 공안만 왔다 가면 최 씨가 이런 불안 증세를 보이고 정도도 더 심해졌다. 중국에 3만 위안에 인신매매로 팔려 와 현재 자신을 만나 10년 동안 가정을 이루고 아들도 낳아 길렀지만, 최 씨는 항상 불안해하며 언제든지 목숨을 끊을 수 있게 독극물이나 칼을 소지한 채 잠자리에 들었다고 털어놨다. 최 씨는 복송돼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차라리 공안이 들이친 순간 삶을 끝내는 게 낫다고 말하면서 10년을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p>	
<p style="text-align: center;">기 도 문</p> <p>사랑하는 하나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세상의 가치가 거센 미국 공교육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주시옵소서. • [북한] 복송과 형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들이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 [교우를 위해] 건강과 재정, 관계와 신분 등의 어려움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도와주셔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p>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p>	

